

목포 남항,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시 도약

산·학·연·관 협력체계...중소형선박 클러스터 조성 R&D실증·전문인력 양성...미래형 해양거점 육성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과 지역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조선호텔에서 조선산업 관련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남항 친환경 중소형선박 클러스터 조성 포럼·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대와 전남 대불산학 융합원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 산업의 기술 동향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 주체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강희진 신

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장, 이경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술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지역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포럼에서는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및 실용화 방안(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전략(목포대학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 산·학·연 전문가들은 지역 조선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기반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 목포시와 목포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유일, ㈜한국메



목포시는 최근 목포조선호텔에서 조선산업 관련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남항 친환경 중소형선박 클러스터 조성 포럼·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목포시

이드, ㈜반센이 '목포시 남항 친환경 중소형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친환경선박과 기자재 연구개발(R&D), 성능시험·평가·실증 인프라 구축·공동 활용,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기술 교류, 관련 기업 유

치와 취·창업 지원, 정부·지자체 정책사업과 국책과제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 남항은 다수의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된 친환경선박의 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첨단안전기술, AI·자율운항 선박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미래형 해양산업 거

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전남 서남권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조선산업은 대전환과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급변하는 정책·산업 환경 변화 대응과 미래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목포 크그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조선 TF를 본격 가동하고, 목포 남항 중심의 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과제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행경비 50% 환급...해남,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선정



평갈마을 전경 대한민국지정

내달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 경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사랑휴가지원제는 관광객이 놓여준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숙박·식비·교통·체험·기념품 등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게 된다.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3월 협약 체결 후 4월부터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항사·평갈마을·우수영 관광지

등 기존 관광자원과 농수산물 특산물, 로컬푸드,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강화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선정은 해남 관광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숙박업소, 체험마을, 외식업체, 전통시장 등 지역 관광 관련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신안, 청소년 정책 제안·실현 기회 제공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20일까지 접수

신안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현장에 직접 담아내기 위해 '2026년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지역 사회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기구다. 특히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제안 활동으로 주목받으며 위원회의 전통을 이어간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신안군 거주 청소년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지역 청소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들은 4월 중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기초교육, 정기·임시회의, 청소년 정책 발굴·제안·모니터링, 지역 맞춤형 캠페인 및 봉사활동, 전국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 참여 등이다.

활동 참여자에게는 신안군수 명의 위촉

장 수여, 청소년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공인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창단 이래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다.

2022년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공모전 최우수상, 2024년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최우수상(도서지역 청소년 여객선 운임 무료지원 정책), 2025년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등 연이은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활동력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주민 참여예산제 청소년 부문에서도 다수 정책이 실제 반영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환 신안군 여성청소년과장은 "도시·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 요강, 신청 방법 등은 신안군청소년 관련 부서(061-240-87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 주말 오픈 상가 인건비 지원한다

19일까지 접수...월 최대 40만원 8개월간 뒷받침

영암군은 최대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주말 오픈 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말 관광·소비 수요 대응, 상가 안정 영업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영암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28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또는 소득금액 3000만원 미만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가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형주점업과 무도유형주점업, 카페·치킨전문점, 2025년도 주말오픈상가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업체는 4~11월 주말 지정 시간인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영업을 해야 하며, 업체당

월 최대 40만원씩 8개월간 총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따로 지급해 매출 증대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우편·이메일(coucou2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적격 여부 확인, 평가 기준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가 선정되며, 그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한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